

中東산유국의 生産分配契約條件 변화

中 東산유국에서 생산분배계약(Production Sharing Contract: PSC)조건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. 이 같은 변화는 생산분배계약이 그 속성상 장기적이기 때문에 석유시장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치 못하는 경직성을 지녔기 때문이다. 특히, 최근에 체결된 리비아의 신규탐사개발 협정내용은 석유시장의 변화, 인접산유국의 PSC 조약관행 및 이전의 리비아국영석유사(NOC)- 참여사간 계약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참여자의 투자리스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상당히 반영되었다. 이는 향후 인접아랍산유국으로 하여금 탐사개발관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리비아의 제3단계 탐사·생산분배협정(Exploration and Production Sharing Agreement: EPSA III)는 이전의 I 단계(1974년), II 단계(1980년) 산유국중심조건이 참여자중심조건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이다. 제3단계협정은 '88년 중반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그 기본내용은 참여자의 투자회수율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.

제3단계협정의 기본골격은 충분한 매장량을 확보하여 산유량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(1)개발비용부담에 있어 양측이 50 대 50, 운영비용은 생산 분배에 따른 共同負擔으로 이루어짐, (2)생산분배율은 유전규모, 육·해상 등 지리적 위치 및 자본설비에 따르며 리비아 국영석유사(NOC)지분은 최소한 보장, (3)조세 및 로얄티는 I, II 협정과 마찬가지로 면제됨, (4)투자비용회수 보장조항이 新設됨, (5)탐사기간은 25년 등으로 되어 있다. 한편 2단계협정(1980~1987)하에서의 탐사성공률은 43%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유전이였다.

지난해 12월에 NOC와 유고에 INA -Naftaplina사에 체결된 PSC내용(탐사개발지역: 북부트리폴리 해상유전)은 생산분배율에 있어 65 대 35로 참여자에게 최대조건을 부여하였다. 이전의 I·II 협정에서 리비아-참

여사간 생산지분율은 底리스크地域 90 대 10, 高리스크地域 75 대 25, 그리고 해상유전은 81 대 19로 구성되어 있었다.

특히 리비아의 EPSA III은 인접아랍국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첫째, 조세 및 로얄티가 면제되었고 둘째, 참여자의 분배지분이 크게 높아졌고 셋째, 분배율이 고정지분율로 고정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.

알제리아 Sonatrach사도 지난해 11월 콘소시엄(프랑스 CFP사, 쿠웨이트의 KUFPEC사 및 스페인의 Repsol사로 구성)과 PSC를 체결하였다. 이 협정은 Sonatrach-콘소시엄간 분배율이 51 대 49로 고정분배율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 및 기술지원은 참여 3社가 부담하는 내용이다. 알제리아는 '88년에 스페인의 CEPESA와의 생산분배계약에서 15천b/d 이하 산유시 65 대 35, 75천b/d 이상 산유시 87.5 대 12.5 등을 규정, 변동분배율을 채택한 바 있다.

시리아와 Occidental사간에 체결된 탐사계약('88년도)은 시리아-참여사간 분배율이 75 대 25(25천b/d 이하 산유시)에서 87.5 대 12.5(200천b/d)까지 6단계를 설정, 변동분배율을 고수하였다. 한편, 북예멘, 이집트 등도 변동분배율을 시행하고 있다.

이상을 종합해 볼 때 생산분배계약조건은 변동분배율과 고정분배율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.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변동분배율에서 고정분배율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으며, 이는 참여자계약증심화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. 고정분배율은 산유량이 증대함에 따라 참여자는 보다 많은 석유량을 점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반면 변동분배율은 산유량의 증대에 따라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분배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. 따라서 산유국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은 소비국의 石油 수요 증대 및 油價의 점진적인 상승에 힘입어 자국의 상류부문 확충을 통한 산유량증대의 일환으로 보인다. ♣ (에너지경제연구원, 에너지동향)